

## 귄터 베니쉬의 건축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of GÜNTER BEHNISCH's works

이호중\* / Lee, Ho-Joung

### Abstract

In a word, Behnisch's architecture can be said to be the architecture of humanism based on an interpretation of the human being. The architecture of Behnisch in which it is not space but people that becomes the subject in architecture is newness or novelty, which is proceeding to position itself as one architectural style representing the times. He refrain from the environment that is defensive and oppressive, and destructive and disruptive in composing his architecture and instead is directed towards the continuous, creative and open environment. With such an architectural language, he is pursuing a minimum of the best rather than quantity based on trust and respecting for man and nature as his unchanged theme. That is, he is seeking for the purpose of architecture that does not disregard individuality such as consumers' wants and needs. As can be seen from it, his architectural work has aroused freshness and stimulus to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that can not be boring, allowed us to look back on the architectural world and triggered our interest. His architecture has the human energy that moves us.

키워드 : 귄터베니쉬, 독일건축, 환경건축, 생태건축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연구 목적

오늘날 실내환경은 기능과 합목적성의 충족만을 추구하던 근대건축에 반하여 다양한 의미의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장르의 혼합, 다양성, 혼재성, 허구성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사회 문화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현대의 문화적 이념과 가치 개념과 통합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으며 건축공간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중층과 대형화, 그리고 내 외부 공간들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성들은 공간의 주체자로서의 인간의 체험을 이해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즉 공간의 개념은 상대성 이론에 의해 시간과 수학적으로 명확히 결합되어진 물리적 실체로서 정의하고 있다. 수직과 수평과 물리적 조건인 중력을 벗어남으로서 솔리드한 건물에 동결되었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무한히 확장되는 시공의 개념으로 바뀌어 공간의 용도도 하나에 규정되지 않고 인간행위에 의해 서로 공유되어지는 건축적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더니즘 이후 근대적 합리성의 변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건축가들 중에서 귄터베니쉬의 작품 분석을 통하여 언제나 개성적이고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는 그의 형태 구성 및 디자인 방법론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베니쉬의 건축공간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베니쉬는 독일의 근대화 운동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작품을 하고 있는 산증인으로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근대 건축에서부터 현재의 건축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일반적인 디자인의 원칙에서 벗어나 보이는 귄터베니쉬 작품들의 개괄적인 파악과 건축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먼저 귄터베니쉬가 영향을 받은 독일 근대건축의 지역적, 사회적 관계들과의 연계성을 통하여 디자인의 사상적 배경을 찾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건축적 언어를 보여주고 있는 귄터베니쉬의 작품을 시기적인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50, 70, 80, 90년대로 나누어 연대별 작품세계를 사례로 제시하여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귄터베니쉬의 건축적 사고의 근원을 그의 작품들 속에서 나타나는

\* 정희원, 건국대 건축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디렉터 교수  
우원디자인 연구소 연구소장

공간 특성들과 인간, 자연, 환경등 주변과의 관계속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베니쉬 작품의 분석을 통해 공간, 기능, 및 형태적인 측면에서 공통적인 구성원리로서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구성 요소들을 사례분석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권터베니쉬 작품의 건축공간의 특성들을 <표>로써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 권터 베니쉬의 건축 디자인 배경

### 2.1. 독일의 근대건축과 사상적 배경

독일의 근대건축은 1,2차 세계 대전의 1920년대와 1950년대의 전후 10년 간은 전쟁 복구에 대한 시간적 부족함이 예술과 건축을 지배하였다.

1945년부터 1955년까지의 기간은 전체주의적 경향이 약화된 형태로 남아 있고 주변국가에서도 파시스트의 건축을 모방한 것이 많았다. 2차 대전 후 독일은 미래보다는 현재의 파괴된 도시 복구와 실용주의가 더 우선이었고 60년대와 70년대는 개발업자의 기능주의와 재정우선주의로 인해서 낮은 수준의 건축물들이 대량으로 만들어 전쟁후의 주택 부족에 대한 요구에 초점을 두었다.

현재 독일은 많은 프로젝트가 시장의 주도하에 국내의 건축가들의 현상공모로 공공의 재정에 의한 건물과 도시계획, 정원, 조경 등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여 건축적 유산의 보존과 현대 건축 언어의 양립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기념비적이거나 과시적인 건축보다는 경쾌한 건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근대건축은 크게 보편주의자인 루드비히 미스 반 데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와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에곤 아이어만(Egon Eiermann)과 유기체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휴고 헤링(Hugo Häring)과 한스 샤로운(Hans Scharoun)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스와 헤링은 1920년대 초 베를린에 공동 사무실을 개설하여 건축의 형식은 용도와 건축의 상황으로부터 발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축 단체인 'THE RING'을 창설하기도 했다.

미스 반 데 로에는 콘크리트, 철 유리 같은 자재의 활용과 필요한 요소만으로 단순화 하고 합리주의적인 건축과 조립에 의한 일반적 형태를 추구하였다. 전후 수년간 미국의 영향이 컸는데 그로피우스의 바우하우스와 미스 반 데 로에의 활동은 국제주의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에곤 아이어만은 철과 유리에 의한 엄격한 수직의 박스형태를 선호하여 미스의 스타일을 발전시켜 정교하게 층을 이룬 표면에 초점을 두고 기본적인 단순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주변 환경에 따른 약간의 변형을 허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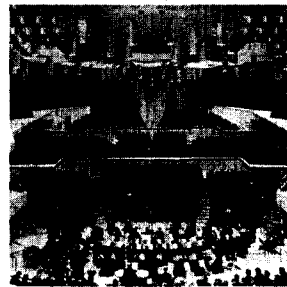
휴고 헤링은 근대 건축 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용도의 문제와 기능에 따른 형태에 많은 관심을 두고 건축은 대지조건과 긴밀히 연

결되고 그에 따라 변화한다는 기능주의자로 특별한 기능과 프로세스를 위한 특수형태를 선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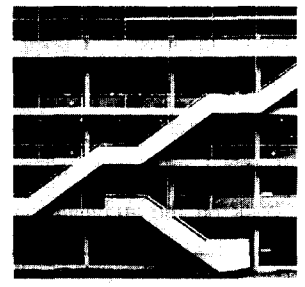
한스 샤로운은 정형화된 평면을 벗어나 시공보다는 파격적이고 불규칙적인 건축 창조에 중점을 두었다. 항상 기능적인 프로그램과 대지조건을 중요시하고 유기적 형태를 위한 역동적 곡선을 사용하고 있다.

베니쉬는 미스와 같은 보편주의자의 합리적 건축에 바탕을 두고 휴고 헤링과 한스 샤로운 같은 유기체적 건축에 영향을 받았다.

독일 건축에 있어서 샤로운은 2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해 온 사람들 중의 하나로 합리적 건축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초기작업에서도 유기적 형태를 얻기 위해 역동적 곡선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샤로운은 디자인의 본질적인 문제들 그리고 건축의 사회적 의미들을 깊이 통찰했으며 그의 공사를 막론한 모든 건물들에서 새로운 특질을 추구했다.



<그림 1> Hans Scharoun, Philharmonic Hall, 1963



<그림 2> Egon Eiermann, Neckermann Mail-Order House, 1960

베니쉬는 뮌헨 올림픽 경기장 마스터 플랜과 프라이 오토(Otto Frei)와의 공동작업으로 주경기장을 설계하였는데, 가벼운 구조와 형태, 정교한 디테일의 반복은 에곤 아이어만의 영향도 보였다. '모든 것은 고유한 개개의 고유의 법을 따라 드러나야 한다는' 건축 철학을 가지고 80년대로 들어서며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눈에 띄게 변화를 하게 된다. 이론적 뒷받침이나 나타나는 모습에서 20년대의 데스틸(de stijl)과 러시아 구성주의의를 배경으로 80년대 후반에 와서는 동시대의 쿵 힘멜블로(Coop Himmelblau)등의 형태적인 해체주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기준에 알려진 해체주의 작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독일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축가중 하나이다. 70년대 이후 독일은 제임스 스티링(James Stirling), O.M. 웅어스(O.M. Ungers), 톱 크리에(Robert Krier), 레온 크리에(Léon Krier) 등과 도시개조(Stadtrepuratur)라는 문제와 함께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요셉 크라이후에스(Josef Kleihues)에 의해 주도된 IBA(Internationale Bauausstellung Berlin ; International Building Exposition)에서도 많은 논쟁의 중심을 이루어갔다. 이후 독일 건축은 크게 웅어스를 중심으로 하는 고전적 모던 계열의 건축과 베니쉬를 중심으로 하는 네오 모던(Neo Modern)의 건축의 대립을 이루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의 많은 현상설계에서 다양한 디자인과 건축공간언어가 자유로운 베니쉬계열의 건축이 주도를 이루고 있다.

베니쉬 건축은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으로 충분한 환경의 창조를 위해서 테크놀러지와 결합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 3. 권터 베니쉬 작품의 연대별 변화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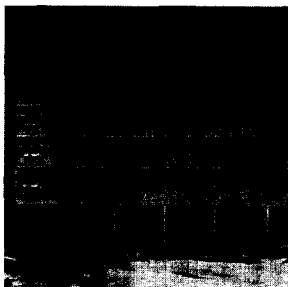
#### 3.1. 50, 60년대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전후 복구를 위해 건축 자재의 산업 기성화로 정확한 규격과 물량 조달과 편리한 시공으로 간편한 조립식 건축자재를 사용하면서 독일 건축계는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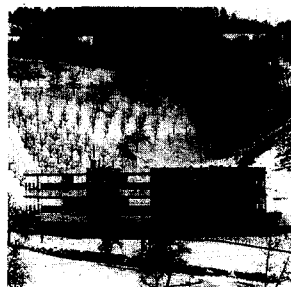
그 후 독일 건축은 시스템화가 이루어져 베니쉬는 1959년 괴핑겐(Göppingen)의 고등학교의 파사드를 기성자재로 완공하였다.

1963년 독일 최초로 완전 조립식으로 울름 전문학교(Ulm Fachhochschule) 건축이 제작되면서 학교건축에 시스템 공법이 도입되나 베니쉬는 건축이 프로그램과 장소보다 생산과 부품에 치중하는데 문제를 인식하여 60년대 후반부터는 새로운 건축언어와 소재를 찾게 된다. 60년대 중반의 건축은 정치적 생태적 환경을 주 관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베니쉬는 뮌헨 올림픽 경기장의 텐트 형식의 새로운 기술로서 창조적 건축양식을 추구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바이마르 시대에 활동하던 새로운 건축가와 베니쉬와 같은 전후 세대들은 현대와 전통에 접목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후 세대 건축가들은 좀 더 발전된 구조학과 현대 민주 사회의 새로운 목표인 인간을 기본으로 하는 인간 본위의 건축으로의 전환을 하게 된다.

60년대 말경 베니쉬의 작품은 기하학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로흐의 학교는 방사형의 평면과 비대칭적인 중앙홀의 공간, 그리고 불규칙적인 1층의 부속건물에서 보이는 경사진 대지와와의 관계와 불규칙적인 평면 기하학의 유기적 공간에서 특수주의자인 휴고 헤링과 한스 샤로운의 유기체적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 3> Technical University, Ulm, 1963



<그림 4> Regional High School and Sports Facility, Berglen-Oppelsbohm, 1969

#### 3.2. 1970년대

베니쉬의 70년대의 작품인 슈베닝엔, 바이브리엔, 로텐부르크의 학교 스포츠홀에서 여러층으로 구성된 정교한 표면과 햇빛 조절의

차양장치에서 아이언만의 영향을 볼 수 있다.

1972년부터 현재까지 베니쉬는 그 특유의 유연성으로 많은 작품 활동을 하게 되는데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유치원과 로흐(Lorch)의 교회, 푸팅겐(Peutingen)의 양로원등에서 실내공간의 섬세함과 인간을 바탕으로 한 밝고 화려하면서도 자연과 잘 조화되고 있다.

뮌헨(Munich)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땅을 파내서 건설될 여러 경기장 위에 거대한 텐트식 지붕을 덮을 것을 프라이 오토(Frei Otto)에게 제안하는데 전체로 보아 그 구조는 거대한 매스가 아닌 주변의 환경과 어우러지고 분절된 단위를 형성하려고 의도된다. 텐트들의 초형대는 분해되어서 고정되며 열리며 또한 닫히는 공간이 된다.



<그림 5> Olympic Stadium Munich, 1972



<그림 6> Stiddienzentrum der Evangeuschen Kirche, 1979

#### 3.3. 1980년대

하이슬라 인스티튜트(Hysolor Institute)는 세계에 베니쉬가 알려진 계기가 된 작품으로 기존의 건축구조를 허무는 반 구조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건축되었는데 짧은 기간과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건축적인 제한 가운데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폴라쥬 같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로흐(Lorch)의 학교와 아이슈테트(Eichstätt)의 대학 중앙도서관에서 그 절제된 자유로움을 볼 수 있는데 기하학적인 제약과 규범보다는 개방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도시와의 관계나 건축과정과 형태들은 모두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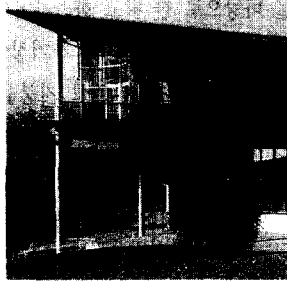
베니쉬의 직각에서의 이탈은 평면에서뿐만 아니라 단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80년대의 아이슈테트 도서관의 경우 일반적인 많은 실들은 직각의 형태로서 합리적 체계에 따라 계획되나 건물의 주요 윙(wing)들은 불규칙적인 중앙홀과 연결되어 중앙홀의 기능이 전이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앙로비는 샤로운의 공공건물들의 로비공간과 유사하지만 건축 작업 면에서는 상당히 다름을 볼 수 있다. 유기적 공간 언어를 만든 샤론은 시공보다는 디자인 형태에 중점을 두었으나 베니쉬는 근대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복잡한 공간의 상호 작용을 창조하면서 스케일 모델을 이용한 작업을 통해서 시공 디테일과 동시에 공간언어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베니쉬는 사회적 목적 의식을 가지고 건축을 향상화시켰는데 프랑크푸르트의 우편박물관과 본의 국회의사당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민주공화국의 이미지를 권위적이기보다는 대중적이고 지적으로

그 건축적인 특성을 잘 표현한 예로 볼 수 있다. 이같이 베니쉬는 인간과 자연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미적 기술적 능력을 보이며 그의 이론은 많은 건축가에게 영향과 건축적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 7> Hysolar Institute Blding, University of Stuttgart, 1987



<그림 8> Sahäfersfeld Secondary School, Lorch,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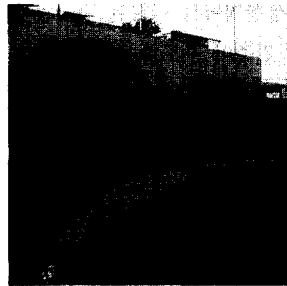
### 3.4. 1990년대 이후

아인슈타인 이후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있는 이들 이론이 제시하는 공간 개념은 역동적 상호 의존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은 건축 구성에서 명확한 인과율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불확정적이며 해체적인 형태구성방식을 보이는데 이것은 현대 철학에서 진보적 선행론의 파괴의 탈 중심화에 따른 것이다. 현대건축은 현상학적으로 열려 있는 방법적 태도를 가짐으로 해서 존재나 주체, 질서의 해체로 표현되는 탈근대 지향적인 이론과 개념들은 현대 건축적 사고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뤼벡(Lübeck)의 주립 보험회사(State Insurance Agenc-LVA)나 란데스기로카세 은행 본부(State Clearing Bank-Landesgirokasse)에서 보듯이 불확정적이며 해체적인 구성양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 건축물들은 형태적인 하나의 디자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주민과 사회에 공간을 환원하고자 하는 생태적인 철학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현대건축의 생태론적 사고에서 건축적 환경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의미는 어떤 대상물이나 물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것<sup>1)</sup>처럼 90년대 이후 더욱 강해진 생태학적인 사고는 건축형태와 더불어 프로그램에서부터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우편박물관(National Postal Museum)에서의 박물관 지하와 외부와 연결되는 유리구조는 환경을 함께 생각하고 형태적 측면에만 얽매이지 않고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의 해석에서 다양성의 가능성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작품인 네덜란드의 포레스트리 연구소 빌딩(Forestry Research Building)은 베니쉬가 가진 생태건축의 공간 언어를 가장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연 환기를 위한 시스템과 생태정원에 딸린 연못, 그리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실(室) 하나하나에까지 자연 시스템을 연구하여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노병민, 정의용, 현대건축의 비영속성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995.10, p.245



<그림 9> National Postal Museum, Frankfurt am Main, 1990



<그림 10> Forestry Research Building, Wageningen, 1997



<그림 11> State Clearing Bank-Landesgirokasse, Stuttgart, 1997



<그림 12> Social Housing, Ingolstadt 1997

## 4. 권터 베니쉬 작품의 형태 구성원리

### 4.1. 건축의 개방성

베니쉬는 세계에 대한 반영으로 미묘함과 다양성이 자체적으로 발전하거나 보전되는 식으로 작업 노력하고 있다. 산업생산의 범칙하에 대형건물을 세우지만 이들에게 우리시대의 자유로운 규범과 예술을 근거로 한 다양성을 부여하고자 하여 그의 건축에서는 편안하고 가벼움들의 개방성등이 다양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수한 것을 선택하고 사회가 아닌 개인을 위해 있으며 편견 없이 사람과 사물을 보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서 건축에 있어서 일종의 가벼움과 편안함을 가져온다. 이처럼 베니쉬에 있어서 도면이나 기하학도 건축의 목적이 아닌 수단인 것이다.

베니쉬는 개방적인 건축만이 우리가 생활하고 만든 변화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기념성보다는 건축에 있어서 경제성을 추구하는 베니쉬는 1977년 제임스 스틸링이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국립미술관 현상공모에서 포스터모던의 기념비주의자인 스틸링과 명료함의 모던을 추구하던 베니쉬의 논쟁은 독재권력대 민주 같은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뚜렷이 보여준 예이다.

1968년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는 뮌헨 올림픽 경기장은 베니쉬의 기술 디자이너인 프라이오토와 엔지니어 프리츠 레온하르트의 도움으로 투명한 텐트 모양의 지붕이 주된 외관을 만들어 내는 경쾌한 건축을 만들었다. 그의 천막과 같은 구조물들은 자유로운 집합들을 구름지대 속에 배치시키는 안을 제안하여 서독의 사회적 정치적, 건축적 부활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새로운 민주적 건축을 추구하였

다. 1936년 히틀러의 경직된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의 기념성에 대한 반대 논제로서 명료함과 가벼움의 완전한 예로 볼 수 있다.

베니쉬의 뮌헨 올림픽 경기장은 스포츠공간의 선입관을 파괴하였다. 공간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로이 활동하기를 바라며 설계되었는데 낮게 깔린 지붕의 반복 형태를 이루는 뮌헨올림픽 주경기장은 낮게 깔린 지붕의 실루엣을 잡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베니쉬 특유의 공간 언어는 그것을 하나의 독립공간이 아닌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게 하는데, 텐트 모양의 지붕은 그 안의 공간분할을 알 수 없도록 가려져 있어 외부에서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공간의 배치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서 공간의 제한이 없다.

전체적으로 유리로 마감된 올림픽 경기장은 낮고 열린 지붕으로 인해 관람객들이 경기를 관람함과 동시에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은 경직되지 않은 베니쉬만의 건축언어인 것이다.

슈투트가르트의 하이솔라 인스티튜트는 좌우 양쪽의 컨테이너 건물과 중앙의 이동변 삼각형 모양의 강당을 두고 있는데 유리와 아크릴로 마감하여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완충공간이 되고 있다. 연한 그린색의 계단과 강당의 상부를 가르는 빨간색 파이프는 공간의 다양함과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베니쉬에 있어서 건축의 경량감 또는 가벼움은 경량판넬이나 유리 같은 소재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유리는 물리적으로는 공간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지만 시각적 투과성으로 인해 모든 방향으로 자유로운 시각적 전개가 가능하여 외부의 변화를 내부로 전달하여 상호관입으로 인해 경관파괴를 최소화하며 외부에서 개방감을 유발시키며 유리가 가진 빛의 투과와 반사로 인해 주변경관의 투과와 반사, 외관색채 변화, 주변의 콘텍스트와 연결되며 비물질화 비스케일화와 소재가 가진 매끈하고 경량감으로 인해 가벼운 볼륨으로 인지된다.

## 4.2. 상황 건축 (Situationsarchitektur)

베니쉬는 건축작품의 목표를 건물자체 보다는 창출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상황을 재창조하여 새롭고 특수한 성격에 따라 세부상황의 결정과 항상 새롭고 독특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건축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주변환경과의 상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설계는 주변환경과의 관계적 특성이 고려 될 때 보다 나은 건축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의 장소, 프로그램과 여러 여건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의해서 건축개념이 생성되는 것으로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전체와의 관계속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베니쉬는 2차원의 평면적 사이트 해석과는 차별화된 해석언어로서 대지를 분석하고 상황을 평가한다.

독일어의 Raum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room이란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말 속에는 물체들로 한정된 구체적 공간의 감각적인 현실과 추상적 공간이라는 지적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울안은 공

간이고 울 밖은 비공간인 것이다. Raum이 가르키는 공간이란 있는 그대로의 자연공간이 아니라 인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Raum이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간과 행위의 세계에 어떤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sup>2)</sup>

우편박물관(National Postal Museum), 슈투트가르트의 보겔상학교(Vogelsangschule), 아이히슈테트에 위치한 카톨릭대 도서관, 올림픽 스타디움, 루긴스란트 유치원, 포레스트리 연구소 빌딩(Forestry Research Building) 외의 많은 작품에서 시추아찌온 아키텍투어가 나타나는데 우편박물관은 프랑크푸르트의 마인강에 위치하고 있는데 부지는 정원이 있는 오래된 저택으로 역사적인 특수성과 원편의 기존 건물의 높이 제약, 그리고 나무 보존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박물관의 관리실은 저택이 사용되어지고 작은 부지를 해결하기 위해 주전시공간을 정원 밑의 두 개층에 걸쳐 위치하고 지상 레벨 위로 특별전시공간을 두고 지하와 지상의 경계부분은 유리구조로 되어서 국가적인 예술의 통신 매체를 전시하는 박물관은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기관의 이미지를 의도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의 보겔상학교는 협곡과 언덕으로 인해 건축부지는 적당하지 않고 시민들에 의해 길들과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런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건축되어진 이 건물은 베니쉬만의 차별화된 언어로 대지를 해석하여 건축물과 자연환경과의 관계성을 통해 조화를 이룬 대표적 예로 볼 수 있으며 아이히슈테트(Eichstätt)에 위치한 카톨릭대 도서관 또한 강변위의 초원에 위치하여 기하학적인 질서보다는 불규칙적인 형태로 개방성을 주어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도서관 건물과 그 주변의 강과 초원 진입로등이 도시와의 관계성속에서 다양하고 자유로운 형태를 이루고 있다.

환경디자인이란 미적인 공간질서와 쾌적한 생태환경을 확보하고 그 장소의 의미와 상징성을 형성해 나가는 활동으로 인간에 있어 환경이란 물리적인 동시에 정신적이기도 하다.

이처럼 베니쉬는 공존질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자연이 인위적 환경과 격리되지 않고 통합되어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시추아찌온 아키텍투어를 통해서 인위적 환경과 자연환경의 균형을 추구한다

## 4.3. 실내건축적 사고

베니쉬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설계는 기하학적 공간의 설계가 아니라 중층적 관계의 설계이다. 환경 전체와의 관계속에서 하나의 디테일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하나의 디테일로 나타나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인간행위체계를 유발하고 규제한다.

건축이 습관적인 틀로서 계획될 때 사용자는 습관적이고 자동반

2)김영철, 건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 존재의 정착과 집중,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6. 9, p.5

복적인 행위만을 한다고 볼 때 베니쉬의 건축은 주체인 인간을 중심으로 두고, 읽는 건축이 아니라 쓰는 건축을 지향하고 있으며 넓게는 공간의 프로그램과 형식에서부터 작게는 계단의 핸드레일의 디테일까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빛과 공기의 흐름, 단힘과 열림을 항상 담고 있는 공간으로 건축물 자체는 테크닉적이지만 내부공간은 주체인 인간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의 방향도 안에서 밖으로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건축적 사고가 단지 덧붙이거나 첨가의 과정이 아니라 총체적 인식의 흐름을 의미하는 실내건축적 사고를 표현하고 있다. 외링겐(Reutlingen) 양로원은 어떤 수용의 의미보다는 별장의 개념처럼 휴가를 즐기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하나의 가구로써 이해되어진다. 안락한 삶을 위한 노인들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체력 단련실, 마사지룸, 치료공간들의 기능성 공간과 동선이 중요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파사드는 유리로 마감되었으며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내부 공간의 목재로 마감되어 마감재의 색상뿐만 아니라 밝은 공간 연출을 위하여 자연 채광에 많은 부분을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투트가르트의 노이게로이트 유치원의 설계 개념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만드는 자유로운 놀이 공간과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위해 친근감 드는 목재와 벽돌의 조그만 장식들을 이용하여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행동 패턴과 유형을 고려한 실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뤼벡 주립 보험회사는 4개의 주요 동으로 구성된 사무실이 다양한 길이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대각선 형태의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앙홀이 수직, 수평의 연결점으로 중심에는 가장 공공의 장소인 출입구와 레스토랑이 위치한다. 각 동의 길고 좁은 형태를 통해서 자연조명과 환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내부에서 외부 풍경과의 최대한 시각적 연장이 이루어진다.

실내환경을 인간과 환경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볼 때 실내공간은 공유와 전달의 개념이 아닌 의미생성의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인간과 환경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직선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의 의미 전달이 아닌 의미작용을 일으킬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베니쉬에 있어 실내공간은 복도 계단, 갤러리, 아케이드, 물, 브릿지 등의 통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벽과 기둥 등의 건축 내부 구성요소들에 의해 통로의 느낌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으며 공공공간의 오픈 레이아웃에서와 같이 특징적으로 인지되는 식별성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런 건축적 구성요소가 모두 의미 생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의 공간 경험과 지각의 현상은 단순히 3차원적인 물리적 공간의 이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 공간의 결합 방식이 인간의 공간적 경험과 맺게 되는 관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체험한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수잔 랭거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공간적 이미지이다. 이는 체험된 공간적 관계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 구체적 관계는 형식만이 아닌 그 형식에 부

여된 정서적인, 즉 분위기를 의미한다.<sup>3)</sup>

#### 4.4. 공유공간에 대한 해석

베니쉬 건축에서 보여지는 확실하게 규정되지 않은 공유공간들은 주체인 사용자에 의해 비워지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는 비규정된 열린 공간으로서 형태로 인식되는 공간이 아니라 그 현상속에 들어가는 공간, 즉 공간은 기하학적으로 비어 있는 '없음'이 아니라 에너지가 가득 차 있으며 거기에는 인간활동, 자연요소, 외부경관 등이 내포되어 있다. 공간 계획 또한 기하학적인 공간의 구획이 아닌 연속적인 에너지와의 관계성의 작업으로서 공간이라는 글자가 형태들 사이의 빈 것으로 인지하기는 어렵지만 잠재적인 에너지가 항상 흐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행위가 모이는 양적인 에너지와 분산되는 음적인 에너지의 관계성이 로비와 같은 공유공간에서 자연스런 조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베니쉬 건축에서의 경계란 어떤 것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지점인 집합적 중간체인 것이다.

공유는 벽의 중첩과 반복, 재료가 가진 투명성등의 면에 의한 공유와 축이나 단위공간, 빛, 소리와 같은 물리적 요소에 의한 공유공간의 유형이 있는데 건축이 인간과의 사실적이고 구체적 관계로 볼 때 인간과 인간 또는 타자가 관계에 인한 공유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공간이다. 공간 지각의 모든 것은 지각하는 자와 지각되는 점과의 사이의 상호 관계에 의존하는 것<sup>4)</sup>처럼 베니쉬의 건축에 나타나는 공유공간에 대한 해석도 인위적이거나 규정적 관계가 아닌 자연스런 행위의 결과와 타자와, 환경과의 관계로 나타나는 공간인 것이다.

베니쉬 건축에 나타나는 입구의 접근 방법은 일반 도로의 경계선에서 한발짝 물러 앉음으로 인해, 도시건축 형태의 키재기를 찾아볼 수 없는 비어있음의 가능성이 있다. 또 중심은 반드시 가시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상징적 측면이나 구축적 측면이 아닌 인간 행위를 바탕으로 한 전체적인 공간개념으로, 공간속에서 생성적인 실재로 인식되어야 하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일반적인 건축의 공간내부는 실의 기능에 의해서 공간이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등으로 구획, 고정되어 있어 특별히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실들이 공간을 점유하고 비어 있는 상태로 있게 되는 데, 베니쉬 건축에서의 로비나 복도는 이동통로의 한가지 기능만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빛과 바람의 통로가 되거나 사람들의 만남과 행위의 공유로 인해서 공생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 공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으로 인해 공간이 매우 함의적으로 해석되어 각기 다른 사람들의 개체적 모습을 비기하학적인 공유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공유공간에서의 힘의 역동과 함께 불규칙에서 규칙을 이끌어 내려는 아름다움이 드러나 있다.

교육시설(게슈비스터 솔 스쿨(Geschwister Scholl School), 외링겐

3)한상원, 박한규, 건축공간에 있어서 중심성의 건축적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995, p.193

4)Joedicke 著 정성원 譯, 건축의 법칙, 미건사, 1995

직업학교(Professional Vocational School), 로흐 중등학교(Secondary School), 하이솔라 연구소(Hysolar Institute Building) 등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의 움직임이 분산, 집중되는 로비공간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난다. 사람의 행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집합적 행위들 예를 들면 음악회, 회의, 강연 발표 등이 규정되지 않은 로비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유출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이 계획되는 것이다.

이처럼 내부공간 그 자체가 미팅장소나 회의 장소로 이용되어지며 로비나 복도가 규정된 로비나 복도가 아닌 열려진 공간으로 사용자에게 의해 항상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 정치적 모습과 그대로 연관되어서 삶의 모습과 제도를 이끌어가는 모습에 투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대에 와서 오랫동안 유지된 중심지향의 수직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의 공존적 사고로 의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기적 통일과 일관성을 중요시하던 건축의 개념에서 편린성이나 임의성 혹은 유희성을 보다 설득력 있는 원리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주체의 탈중심화, 주체의 종말로 표현 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주체는 없어지고 모든 것은 다수 요인들의 상호 작용 결과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설명한다. 이런 비영속적 경향은 현대 사회의 생태론적 사고의 공존 공생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sup>5)</sup>

건축의 기능과 형태를 건축에서 내용으로 바꾸려는 체험을 할 때 공간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포함되는 삶을 위한 건축이 되는 것이다. 건축의 의미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객관적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건축공간에 대한 체험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어 간다.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 재고해 보면 발전하는 물리적 수단에 비해 건축공간은 공동체가 지녀야 할 본질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공간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관련된 이미지를 통해 장소가 되며 그 후에 시간은 그것의 이미지화에 동기가 된다. 실용적 단위공간으로 이해되는 단순히 비워진 공간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자 변화의 폭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이자 공공의 영역이 매개공간으로 이해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 4.5. 파트너십 (Partnership)

베니쉬의 건축전반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건축언어의 창조는 파트너십에 기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2년 부루노 람바르트와 함께 사무실을 개설하여 1962년 프리즈 아우어, 빈프리트 뷔셀, 에어하르트 트래크너, 칼하인츠베버, 1971년 만프레드 자바트케와 합류하여 현재는 베니쉬, 베니쉬 앤 파트너라는 회사명으로 스테판 베니쉬가 있고 베니쉬 앤 파트너에 만프레드 자바트케와 귄터 살러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베니쉬 앤 파트너는 상호 관계적이고 자발적인 디자인팀을 통해

5) 노병민, 정의용, 현대건축의 비영속성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986. 10, p.246

서 건축적 노력을 조직화하는데 디자인팀은 프로젝트의 건축적 요구와 클라이언트와 건축가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신중하게 구성된다. 디자인팀은 자유로운 참여속에서 클라이언트와 베니쉬 앤 파트너에게 경험의 일반성과 디자인 프로젝트의 구체성,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이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위한 정당성을 가진다. 많은 사람들과 작업한다는 것은 의견이 많음으로 인한 절충의 어려움은 있으나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건축언어를 찾기도 한다. 베니쉬 앤 파트너의 축적된 건축경험과 전세계의 젊은 건축가들의 작업참여는 베니쉬의 건축이 고정된 언어가 아니라 인간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건축언어로 다양하게 전환시키며 또한 자연스럽게 어떤 하나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새로운 생각에 대한 자발성은 프로젝트의 본질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 5. 결론

베니쉬는 연속적이며 창조적인 열려진 환경으로 나가는 건축언어를 가지고 50년대 이후 신뢰를 바탕으로 수량보다는 최소의 잘된 최선의 것을 추구하며 그들의 변함없는 주제인 인간과 자연을 존중하면서 사용자 각각의 욕구와 필요 등의 개인성을 존중하는 건축 목적을 추구하였다. 70년대를 거치면서 기하학에서 유기체적 경향으로 전환하면서 환경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80,90년대를 거치면서 자연과의 조화를 최상의 조건으로 하는 공간을 창출해 나가는 데, 베니쉬 건축에서의 환경은 빛과 같은 자연적 요소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그 자체가 살아가는 삶속에서 공유되어짐이 우리에게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의 건축은 매우 합리적이며 권위나 억압이 없으나, 그 안에는 베니쉬만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개방성, 상황건축, 실내 건축적 사고, 공유공간에 대한 해석, 작업과정에 있어서의 파트너십에 의해 나타나며 이를 통하여 공간적 특성에 있어서 형태적 구성원리가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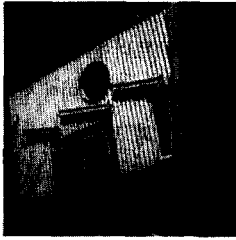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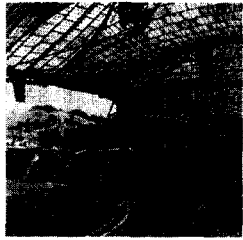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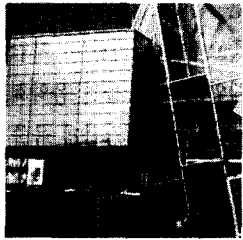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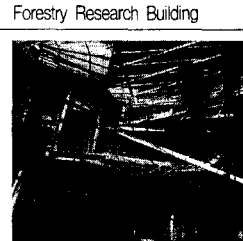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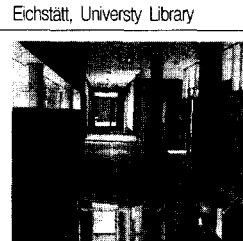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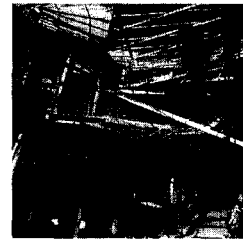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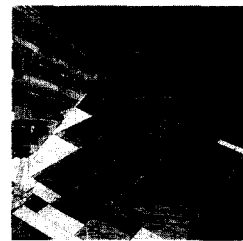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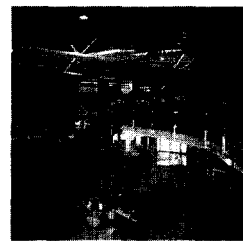
이제까지 그의 작품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베니쉬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건축 스타일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모든 사물을 순수한 시각으로 이해하려 했으며 그것이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공간에서 사람의 행위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다. 곧 베니쉬의 건축은 전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해석과 환경을 바탕에 둔 휴머니즘의 건축이라 할 수 있다.

에코(Eco)는 현대 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건축가는 전혀 다른 코드를 통해 해석될 수 있는 의미 형태를 발견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런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 바로 건축 밖에서 건축 코드를 만들어 내는 역사적 상황이 그 코드에 의거하여 만들어낸 의미 형태보다 더 빠르게 변질되기 때문이다."<sup>6)</sup>

항상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었던 베니쉬의 작품이지만, 그 끝에는 항상 그 때마다 다른 주제들에 찬사를 받음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6) ECO, Umberto 著 조형준 譯, Oper aperta, 새물결, 1995, p.431

<표 1> 베니쉬 작품의 건축공간 특성

공간의 특성	프로젝트			
건축의 개방성				
	Bonn Plenary Complex of the German Parliament	Luginsland Kindergarten	Olympic Stadium	Hysolar Institute Building
시추아찌온 아키텍투어				
	Olympic Stadium	National Postal Museum	Forestry Research Building	Eichstätt, University Library
실내건축적 사고				
	Albert Schweitzer School	Ingolstadt Kindergarten	Lübeck, State Insurance Agency-LVA	Geschwister Scholl School
공유공간에 대한 해석				
	Öhringen, Vocational School	Hysolar Institute Building	Landesgirokasse, State Clearing Bank	Lorch, Schäfersfeld Secondary School

작품은 지루할 수 있는 건축환경에 신선함과 자극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의 작품을 통해 지금의 건축계를 되돌아보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인간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건축에 있어서 사람이 주체가 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베니쉬의 건축은 새로움이며 이미 그것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건축 양식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참고문헌**

- 김영철, 건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존재의 정착과 집중,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5. 9
- 노병민, 정의용, 현대건축의 비영속적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995. 10
- 한상원, 박한규, 건축공간에 있어서 중심성의 건축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995
- Behnisch, Behnisch & Partner, Das Bristol Project B,B & P, 1999
- Dominique Gauzin-Müller, Behnisch & Partner, Ernst & Sohn, 1997
- Egbert Koster, Natuur onder architectuur, Schuyt & Co, 1998
- Eco, Umberto 著 조형준 譯, Opera aperta, tognfruf, 1995
- Günter Feuerstein 著 鄭英洙, 鄭英喆 譯, 독일건축의 신경향, 산업도서출판 공사, 1995
- Joedicke 著 정성원 譯, 건축의 법칙, 미건사, 1995
- 건축과 환경, 1996, 5
- glasforum 3·88, 1988, JULI
- glasforum 4·88, 1988, SEPTEMBER
- glasforum 6·93, 1993, DEZEMBER
- moeble interior design, 1989, 11

<접수 : 2000. 7. 31>